

몬페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8월 23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부르신 곳에서
3. 말씀 리뷰(Word): 롯기 강해(3) - 믿음으로 가는 길 / 롯 1:15~18

롯기에서 오르바와 롯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오르바는 현실적인 이유를 따라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롯은 손해와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나에게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고, 롯은 모압 여인이었으며, 베들레헴에서의 삶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보다 세상의 성공과 안정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롯은 현실의 어려움보다 나오미에게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롯의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이익을 따라가지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편한 길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자신이 섬김 받을 수 있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섬겨야 할 나오미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까’보다 ‘내가 누구를 섬길까’가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외롭고, 지쳐 있고,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롯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무리 돌아가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8절에서 나오미는 롯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롯은 현실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어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2. 롯은 자신이 섬김 받을 수 있는 모압보다 섬겨야 할 나오미가 있는 베들레헬을 선택했습니다.

- 나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받는 것과 무엇을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내가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3. 롯은 어려움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끝까지 선택했습니다.

- 지금 내가 포기하고 싶은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4.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 내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5. 믿음의 사람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 우리 공동체가 롯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공동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과 손해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롯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부르신 곳에서

Words & Music by
김준영 & 송은정

E E sus4 EM7 D/E

따스한 성령 - 님 - 마음으 - 로 보네 - 내 몸
사랑과 진리 - 의 - 한 줄기 - 빛 보네 - 내 몸

AM7 G#m7 C#m7 F#m7 A/B E E7

을 감싸며 - 주어 지는 평 - 안 함 - 만 족함 - 을 느 끼 네 부르신 곳 에서
을 감싸며 - 주어 지는 평 - 안 함 - 그 사랑 - 을 느 끼 네 부르신 곳 에서

AM7 G#m7 C#m7 F#m7 A/B E D/E

- 나는 예배 하 네 - 어떤 상 황 에 도 - 나는 예배 하 네 - 부르신 곳 에서

AM7 G#m7 C#m7 F#m7 A/B E

- 나는 예배 하 네 - 어떤 상 황 에 도 - 나는 예배 하 네 - Fine 내가

AM7 B/A G#m7 C#m7 F#m7 A/B E E7

걸 어 갈 - 때 길 - 이 되 - 고 살 아 갈 - 때 삶 - 이 되 - 는 그 곳 에서 - 예배 - 하 네 - 내가

AM7 B/A G#m7 C#m7 D B sus4 B E/G#

걸 어 갈 - 때 길 - 이 되 - 고 살 아 갈 - 때 삶 - 이 되 - 는 그 곳 에서 - 예배 - 하 네 - 부르신 곳 에서

D.S. al Fine